

小説 L'Étranger에서 Meursault가 죽음에 이르는 道程

黃 乙 文

Le trajet de Meursault qui doit exécuter dans le roman
“L'Étranger”

Hwang Earl-Moon

〈 目 次 〉

- | | |
|------------|---------------|
| 1. 序 言 | 4. 神에 대한 挑戰 |
| 2. 文體의 特性 | 5. 人間 純粹性의 失敗 |
| 3. 文體의 象徵性 | 6. 結言: 眞正한 喜悅 |

RÉSUMÉ

Le roman “L'Étranger” d'Albert Camus est bien connu de ses oeuvres par la pensée existentialism au 20 siècle. Il l'a composé de son idée qui s'appelle “L'absurde” raisonné par pessimisme.

Camus insiste sur la pureté d'humanité avec son héros “Meursault” dans son roman, en refusant, la rationalité du monde pour humains par le “Dieu”. Mais, sa doctrine, en réalité, est toujours irréalisables de ce monde, on sait que ce n'est qu'un idéal de l'auteur lui-même ou quelques existentialistes. Cependant, c'est le grand problème de nous qui doit poursuivre éternellement, Il la prétend jusqu'avant son exécution.

1. 序 言

Jean-Paul Sartre와 더불어 20세기 實存主義 哲學思想을 문학작품 속에 具現시킨 Albert Camus의 여러 작품 중에 소설 “L'Étranger” 만큼 그 치밀한 소설적 구성과 특

이한 문체, 現實과 非現實의 대립으로 전개되는 줄거리에 대한 Sympathie와 Antipathie 등으로 잘 알려진 작품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Camus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Pessimisme에서 유추된 그의 “L’absurde” 사상을 試論인 “Le Mythe de Sisyphe”를 통해 피력하고, 이 시론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소설의 형식을 빌어 자신의 사상을 구현한 것이 바로 “L’Étranger”이므로 이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문체의 특성과 그 문체에 內在하는 서술상의 기법을 통한 작가의 의도를 고찰함으로써 이 작품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虛妄의 作家”로도 불리우는 Camus의 “不條理” 사상을 觀照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Camus는 문학의 관례상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Passé Simple을 무시하듯이 주로 Passé Composé와 Imparfait로 구성된 간결한 문체를 통하여 인간의 純粹性을 主唱하고 있으나, 인간의 倫理와 良心의 基本律이 되는 “神”이란 존재를 거부하므로써, “至高至純”한 신의 역할을 “純眞無垢”한 인간 자신으로 代行시켜 實存하는 인강상을 표출하려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이 되고, 그 代行者로 Meursault란 부조리 사상이 낳은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신의 역할 대행은 어디까지나 현실화 할 수 없는 영원한 인간의 理想에 불과하다는 絶望感에서 순수성의 영웅이라 할 Meursault를 단두대로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 세계의 “沒合理”라 규정지으며, 순수성의 추구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과정을 Meursault가 사형언도를 받아야만 하는 必然性으로 결부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작가의 의도를 論證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論旨이다.

2. 文體의 特性

소설 “L’Étranger”를 전개시켜 나가는 문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수식어가 거의 없고 서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간결한 문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지만, 이러한 서술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단정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긴 하나, 가장 현저한 특성에 관한 고찰이라면 그 보편 타당성이 인정될 만큼 이 작품의 특성은 규정지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선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문체의 특성은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에 의한 口語體란 점인데, 그 예로

“Vous comprenez M. Meursault, m’a-t-il dit, c’est pas que je suis méchant,

mais je suis vif ... 종략 ... Alors, il m'a déclaré que justement, il voulait me demander un conseil au sujet de cette affaire, que moi, j'étais un homme, que je connaissais la vie, que je pouvais l'aider et qu'ensuite, il serait mon copain" (L'Étranger: Folio, 1978: p.48, 49)

에서 보면, 종래에 Passé Simple 로 서술하던 문학의 관례를 벗어난 서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Camus가 의도적으로 전통적 서술 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형식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에게 그러드라”는 식의 간접화법의 분위기를 살려 자신 이외의 주위환경에는 일체 무관심하려는 Meursault의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세상의 “Étrangereté”와 “무의미한 세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 Mais tout le monde sait que la vie ne vaut pas la peine d'être vécue.

Dans le fond, je n'ignorais pas que ...” (p. 173)

에서도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들의 사용 빈도는 높은 반면에 의미심상하거나 그림같이 미려한 뜻을 지닌 동사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보아 작가의 그러한 의도를 문체를 통해 읽을 수 있으며, 문체를 구성하는 어휘에 있어서도 동일한 효능을 갖는 어구들이 원문 중에서 수없이 등장하는데, 그 예로

“ L'air, avoir envie de, avoir impression, dans le fond, en réalité, à la longue, au bout du compte, en somme, pour ainsi dire, d'une certaine façon, je peux dire que, j'étais très étonné, c'était évident, drôle.”

등에서도 Meursault의 순진성을 감지할 수 있다. 시제 사용도 문학적인 관습에 따르는 Passé Simple 보다 대부분의 시제가 Passé Composé 로 이루어져,

“ J'ai retrouvé dans l'eau Marie Cardona, une ancienne dactylo de mon bureau dont j'avais eu envie à l'époque. Elle aussi, je crois. Mais elle est partie peu après et nous n'avons pas le temps. Je l'aidée à monter sur une bouée. (p. 34)

위의 예문에서 서술에 관한 과거는 제일 첫 문장의 경우 Passé Composé 보다 “J'avais retrouvé dans l'eau ...”처럼 Plus-que-parfait 를 사용해야 논리에 맞으며, 더우기

“ J'étais un peu étorudi parce qu'il a fallu que je monte chez Emmanuel.”
(p. 10)

에서도 그 의미에 따라 Il a fallu를 Il avait fallu나 Il fallait로 표현해야 하는 등 구어체의 특성이라 할 시제의 단순화가 구문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으나, 소설에서 과거의 사실을 묘사할 적에 Passé Simple을 사용하는 것이 文語體의 정통성을 고수하는 방도라고 하더라도 현대 언어학의 입장에서 볼 적에 Passé Composé와 Passé simple은 제각기 나름대로 고유한 영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Passé Simple은 점점 그 영역을 Passé Composé에게 넘겨주고 문학작품 속에서만 쓰이게 됨에 따라 가장 명확한 소설적인 언어 중의 하나가 되어 있어서 Passé Simple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문예관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결과가 되지만 Camus가 이 작품에서 對話이거나 사실묘사거나 간에 Passé Composé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L'Étranger의 문체의 특성을 Passé Composé로 규정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튼 Passé Composé를 사용하기 위해서 Passé Simple의 사용을 거부한 작가의 의도는 문학의 정통성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줄거리의 “순수”란 특성에 증언이 될 수 있는 가치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예문에서 처럼

“L'asile est à deux kilomètres du village. J'ai fait le chemin à pied. J'ai voulu voir maman tout de suite. Mais le concierge m'a dit qu'il fallait que je rencontre le directeur. Comme il était occupé, j'ai attendu un peu.(p.11)

에서 Passé Composé를 Passé Simple로 구절을 바꾸어 보면

“L'asile est à deux kilomètres du village. Je fis le chemin à pied. Je voulais voir maman tout de suite. Mais le concierge me dit qu'il fallait que je rencontre le directeur. Comme il était occupé, j'attendis un peu.”

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Passé Composé의 사용은 독자들의 습관에 현저하게 드러나도록 묘사된 행위들을 뒤엎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예문에서는 구술 기록들이 줄거리 속에 용해되어 버리지만, 첫째 예문에서는 그 기록들이 일목요연해 짐을 알 수 있다. 또한 Passé Composé의 또 다른 효능은 다음 예문

“Le sable surchauffé me semblait rouge maintenant. Nous avançons d'un pas égal vers les Arabes. La distance entre nous a diminué régulièrement.(p.86)

에서 보다시피 diminuer 동사가 Imparfait인 diminuait로 묘사되는 것보다 a diminué 같이 Passé Composé로 묘사됨으로서 Arabes인들과의 사이에서 거리가 단축되는 효과를 훨씬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바로 그 다음 문장으로 연결되어 마치 독자들의 면전에서 생생하게

“ Quand nous avons été à quelques pas les uns des autres, les Arabes se sont arrêtés. Masson et moi, nous avons ralenti notre pas. Raymond est allé tout droit vers son type.”(p.86~87)

같이 연출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이 장면을 과거의 연속인 Imparfait로 표현하면

“ Quand nous étions à quelque pas les uns des autres, les Arabes s'arrêtaient. Masson et moi, nous ralentissions notre pas. Raymond allait tout droit vers son type.

로 되어 사건을 진행시키면서도 문장에 더욱 활기를 불어 넣는 Passé Composé 보다 Imparfait가 단순히 과거에서의 배경묘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3. 文體의 象徵性

그렇다고 해서 Imparfait가 L'Étranger의 구성 요소로서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문체의 특성은 외면상에 들어나는 문체에 관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철학적 사상에 의해 구성된 소설들이 그러하듯이 문장의 이면에 감추어진 작가의 의도, 즉 문체의 상징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J'ai demandé deux jours de congé à mon patron et il ne pouvait pas me les refuser avec une excuse pareille. Mais il n'avait pas l'air content. Je lui ai même dit : “ Ce n'est pas de ma faute.” Il n'a pas répondu … 중략 … J'étais encore dans l'eau quand elle était déjà à plat ventre sur la bouée. Elle s'est retournée vers moi. Elle avait les cheveux dans les yeux et elle riait … 중략 … Elle riait toujours. (p. 34)

에서 사건의 진행은 Passé Composé로, 등장인물의 심리묘사나 사건의 배경 등은 Imparfait로 묘사하되 수식어도 전혀 없고 설명도 없이 독자로 하여금 줄거리의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눈 앞에 드리워진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가 웃고 있었다.”라고만 서술했지 그래서 “예쁘다”든가 “매력이 있더라”든지, 또는 “어떤 감정을 느꼈다.”는 등의 표현은 없지만, 은연중에 그녀의 그러한 모습에서 “나”라는 존재가 매력을 느낀 점을 암시해 줌으로서 실제 그 매력이 독자의 상상 속에 더욱 생생하게 부각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게

다가 단 세 개의 단어로만 표현된 “그녀가 자꾸만 웃고 있었다.”를 Passé Composé 로 “Elle a toujours ri.”라고 서술했더라면 그녀의 웃음이 독자에게 비정상적인 웃음으로 인식되거나 그녀의 태도 자체가 모호해지게 되겠지만, Imparfait로 서술함으로써 “나”라는 상대에 대한 그녀의 태도와 감정이 好感을 가진 것으로 전달되고 있다. 또한 이 대목에서 “그녀도 나를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았다.”는 설명이나 “Elle riait toujours avec coquetterie.” 정도로 묘사되었다더라면, 다분히 通俗의인 신문소설 같은 인상을 풍겨서 Camus가 부각시키려는 “순수한 인간, 순진무구한 인간”Meursault의 image가 흐려지게 되므로, 或者에 따라 어휘력 부족이나, 이상하리 만치 간결한 문체 등의 비평을 받긴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간결한 문체는 소설 L'Etranger에서 가장 핵심적 요인이 되는 “인간 순수성”을 상징하려는 작가의 고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Meursault의 애인으로 간주해야 할 Marie Cardona에 대해서는

“ Je lui ai demandé si elle voulait venir au cinéma le soir. Elle a encore ri et m'a dit qu'elle avait envie de voir un film avec Fernandel. Quand nous sommes rhabillés, elle a eu l'air très surprise de me voir avec une cravate noire et elle m'a demandé si j'étais en deuil. (p. 35)

에서 작가의 의도는 “Fernandel”이 희극 배우인 만큼 그가 출연하는 영화는 희극 영화가 당연할 것이므로 “그녀”도 순진 내지 천진스런 여성이지, 철학적으로 사색하며 살아가는 여성이 아니란 점을 쉬이 類推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런 점은 “검은 넥타이를 맨 것을 보고 매우 놀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하여튼 Camus의 궁극적인 목적은 희극 영화(그것도 유치한 영화로 뒤에 표현된)나 좋아할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여자도 깜짝 놀랄 “어머니의 죽음”이란 사실에 대해 Meursault의 무관심한 태도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만큼 자기자신을 떠난 주위환경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순진성”의 강조로도 볼 수 있다. 사실상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프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왕 돌아가신 이 마당에 무더운 날씨 탓에 해수욕 가게 되어 옛 애인을 우연히 만나 남들처럼 해수욕 한다는 것은 당연할 지도 모르는 일이며, 저녁에 남은 시간을 같이 영화본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엇이 나쁘냐?”고 반문해 보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詰責할 수 있는 권한은 사회규범 밖에 없다. 슬프지도 않으면서 주위를 의식하여 슬픈 체 하거나, 슬픈 시늉이라도 해야만 하는 현실이 더욱 슬픈 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인간다움고 때문지 않은 인간의 순수성을 지닌 사람이란 점을 작가가 상징적으로 表出시킴과 동시에 Pessimisme에서 기인하는 l'absurde 사상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沒合理”로 규정되어 있는 이 세계의 “矛盾”도 아울러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Marie와 Meursault의 “순진성”은 Meursault가 拘禁되고 난 후에 Marie가 면회 온 과정에서 계속되어

“ Tout cela, je l'ai remarqué très vite en m'avangant vers Marie. Déjà collée contre la grille, elle me souriait de toute ses forces. Je l'ai trouvée très belle, mais je n'ai pas su le lui dire ...중략... Nous nous sommes tus et Marie souriait toujours ... 중략 ... Elle a crié de nouveau: “Tu sortiras et on se mariera!” J'ai répondu: “Tu crois?” mais c'était surtout pour dire quelque chose. Elle a dit alors très vite et toujours très haut que oui, que je serai acquitté et qu'on prendrait encore des bains ... 중략 ... Puis est venu mon tour. Marie a fait signe qu'elle m'embrassait. Je me suis retourné avant de disparaître. Elle était immobile le visage écrasé contre la grille, avec le même sourire écartelé et crispé.” (p. 115~119)

로 증명되고 있는데, “그녀가 아름답다고 느꼈으나, 그 말을 할 줄 몰랐다.”는 Meursault의 순진성이고 이미 앞장에서 예를 든 “Elle riait toujours.”가 여기서는 “Marie souriait toujours.”로 동사가 rire에서 sourire로 바뀌어 이 두 동사가 갖는 “nuance”의 차이에서 Marie의 순진성을 엿볼 수 있고, “출옥하면 우리 결혼해요”라는 외침은 단순히 그 만큼 Meursault를 사랑한다는 의미보다도, Marie의 순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말이 진정으로 한 것이고, 틀림없이 출옥할 것이니, 다시 해수욕 가자는 그녀의 절규는 감동적인 Mélodrame에서나 느낄 수 있는 비장한 분위기까지 연출시키고 있다.

또한 면회시간이 끝나 되돌아가는 Meursault에게 “Marie a fait signe qu'elle m'embrassait”에서 주절은 “Passé Composé”로 종속절은 imparfait로 묘사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Marie의 순수성의 상징으로 보여진다.

하여튼 riait toujours가 souriait로 전환했다가 sourire écartelé et crispé로 귀결짓는 서술기법은 순수성을 隱喻的으로 상징함과 동시에 독자로 하여금 “인간의 순수한 마음상태”로까지 유도하는 무한한 Sympathie를 불러 일으키는 효과도 얻고 있어서 Camus가 소설 구성상 삼대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등장 인물을 통해 “인간 순수성”을 主唱하려는 것이 L'Étranger의 핵심이므로 Meursault를 “순수성의 化身”으로 내세운 이상, 그의 연인인 Marie도 순수해야 한다는 것은 必然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Camus는 L'Étranger의 1, 2부를 막론하고 거의 전편을 통해 이 순수성을 隱喻적으로, 때로는 直說的으로 表出시키고 있어서, 일일이 그 모두를 列舉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行路는 고찰해 보아야 작가의 진정한 의도를 노출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神에 대한 人間 純粹性的의 挑戰

전통적으로 기독교 문화권에 속하는 서구 사회에서 정신계를 지배해 온 존재는 두말 할 나위없이 “神” 즉, “하나님”이란 것은 기정 사실이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만이 至高至純한 唯一神이고 그 외의 諸神은 雜神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명칭없이 “神”이라고 칭할 적에는 으레 “하나님”을 뜻한다. 그런데 세계 제 1, 2차 대전을 치르는 동안 기독교 교리에서 명백히 주장되어 온, “神”에 의해 창조된, 합리적이고 調和로운 세계란 관념에 인간들이 懷疑를 갖게 되자, 서구 정신계는 일대 혼란이 오게 되고 “神의 不在”를 주장하는 소위 “實存主義哲學”이 胎動된다.

그러한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Camus도 Pessimisme적 경향이 농후한 자신의 L'absurde 사상에서 “神의 不在”를 論理의 첫 단계로 보고 있으므로 “神”이 없는 이 세계가 질서와 윤리, 合理로 어우러져 인간에게 調和로운 세계로 되자면 “神”의 역할을 대행해야 할 그 “어떤 존재”의 필요성이 당연히 대두되기 마련이다.

이 필요 불가결성의 產物이 바로 “인간들이 모두가 순수하기만 하면 된다.”는 “인간 순수성의 추구”이고 Meursault는 그 순수성의 대변자인 동시에 실행자인 것이다. 예심판사의 심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수난상이 조각되어 있는 십자가를 보여주며 “이 분을 아느냐?”고 묻는 판사에게

“J'ai dit : “Oui, naturellement.” Alors il m'a dit très vite et d'une façon passionnée que lui croyait en Dieu, que sa conviction était qu'aucun homme n'était assez coupable pour que Dieu ne lui pardonnât pas, mais qu'il fallait pour cela que l'homme par son repentir devint comme un enfant dont l'âme est vide et prête à tout accueillir. … 중략 … A vrai dire, je l'avait très mal suivi dans son cabinet de grosses mouches qui se posaient sur ma figure, et aussi parce qu'il me faisait un peu peur. Je connaissais en même temps que c'était ridicule parce que, après tout, c'était moi le criminel. (p. 107)

여기서 내용을 떠나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L'Étranger 문체의 특성이 前述한 바와 같이 주로 Passé Composé와 Imparfait로 서술되어 있지만, devoir 동사와 pardonner 동사만 Passé Simple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 두 동사가 Passé Composé 로 서술되었다면 과거의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神”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Imparfait 로 서술되었다면, 과거에서의 연속이 되므로 작가 자신의 L'absurde 사상 입장에서 볼 적에 “인간 관념의 産物에 불과한 “神”의 영속성을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묘사한다”는 문법의 관례를 따랐다기 보다는 “神”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작가의 고의성이 문체에 드러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신의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치 어린애 같이 영혼을 순수히 하고…”라는 판사의 주문은 바로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 Agapé 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순수성 추구 = Meursault = 어린애 = 純眞無垢性이란 等式을 성립시켜 신의 역할을 대항하려는 입장에서는 이 예심판사의 說文에 가까운 주문만큼 二律背反적인 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의 理論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당연한 귀결이고, “판사가 하는 짓과 말이 우스꽝스러웠다.”는 “神”에 대한 “인간 순수성”의 도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도전은

“J'allais lui dire qu'il avait tort de s'obstiner ce dernier point n'avait pas tellement d'importance. Mais il m'a coupé et m'a exhorté une dernière fois, dressé de toute sa hauteur, en me demandant si je croyais en Dieu. J'ai répondu que non. Il s'est assis avec indignation. Il m'a dit que c'était impossible, que tous les hommes croyaient en Dieu, même ceux qui se détournaient de son visage. C'était là sa conviction et, s'il devait jamais en douter, sa vie n'aurait plus de sens. “Voulez-vous, s'est-il exclamé, que ma vie n'ait pas de sens?” A mon avis, cela ne me regardait pas et je le lui ai dit.
(p. 108)

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란 질문에 “J'ai répondu que non”으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Meursault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 살인죄로 구속되어 여러 가지 불리한 정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무엇인가에 의지하거나 호소하거나, 동정을 구하려는 것이 人之常情일 터인데도 독실한 기독교 信者로 묘사된 담당 판사의 강압적인 질문에 Non 으로 답한다는 것은 당돌함마저 느낄 정도로 무모해 보이기도 하나, 비록 살인은 했을망정 Meursault란 인간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무뢰한도 아니고, 어떤 신념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 금력, 가문, 학벌, 지위도 하찮은 말단 봉급 생활자에 불과한 아주 평범한 젊은이로만 규정지어져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는 하기 힘든 답을 한 것에서 Meursault의 순수성이 더욱 부

각되지만, 그 다음에 “당신은 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하시오?”라는 판사의 단말마적 질문에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답한다는 것은 이 상황과는 상관없는 독자들까지 깜짝 놀라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대답은 무모한 것도 용감한 것도, 무지에서 기인된 것도 아닌, 솔직함에 의한 답일 따름이고 그러한 솔직성은 순수함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신에게 歸依시키기 위한 판사의 노력 또한, 기독교 신자답게 계속되어

“Moi, je suis chrétien. Je demande pardon de tes fautes à celui-la. Comment Peux-tu pas croire qu'il a souffert pour toi?” (p. 108)

라고 권유하지만 그 내용이 “救援의 敎理”에 속해서 Meursault의 앞길에 불길한 예고가 되기도 한다. 어쨌든 “神”에 대한 “인간 순수성”의 도전은

“Comme toujours, quand j'ai envie de me débarrasser de quelqu'un que j'écoute à peine, j'ai eu l'air d'approuver. A ma surprise, il a triomphé “Tu vois, tu vois, disait-il, N'est-ce pas que tu crois et que tu vas te confire à lui?” Evidemment, j'ai dit non une fois de plus. Il est retombé sur son feuteuil.”(p. 108~109)

에서 일단 승리한 것처럼 생각되나 이미 예고된 “사형 언도”란 판결에 의해 패배로 끝나게 되지만, 신부의 終傳기도를 끝내 거부하던 Meursault가 우연히 신부의 尋訪을 받게 되어

“Il a essayé de changer de sujet en me demandant pourquoi Je l'appelais “monsieur” et non “mon père”. Cela m'a énervé et je lui ai répondu qu'il n'était pas mon père : il était les autres.” (p. 182)

에서 사건의 진행은 Passé Composé 로 서술하고 있으나, 신부의 신분만은 Imparfait 로 서술하여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한결 더 강조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으며,

“Non, mon fils, a-t-il dit en mettant la main sur mon épaule. Je suis avec vous. Mais vous ne pouvez pas le savior parce que vous avez un coeur aveugle. Je prierai pour vous.” Alors, Je ne sais pas pourquoi, il y a quelque chose qui a crevé en moi. Je me suis mis à crier à plein gosier et je l'ai insulté et je lui ai dit de ne pas prier. Je l'avais pris par le collect de sa soutane. Je deversais sur lui tout le fond de mon coeur avec des bondissements mêlés de

joie et de colère.” (p. 182)

에서도 Passé Composé로 계속 서술해 오다가 마지막 부분인 deverser 동사만 Imparfait로 묘사되어 욕설을 퍼붓는 정경이 마치 바로 面前에서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아뭏든 예심판사에게나 신부에 대한 Meursault의 이러한 행동이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입장에서 볼 적에는 충분히 관념상 “Sympathie”를 불러 일으킬 素地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유신론적 입장에서는 可憐을 떠나 무례하고 불손하다는 감정까지도 유발시킬 素地가 다분히 있다.

그러나 Camus가 Meursault를 내세워 이토록 거센 반발을 惹起시킬 모험을 하는 뜻은 “인간의 순수성”을 主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L'absurde 사상의 출발이 “神에 의한 합리적인 세계”를 전면 부정하는 “沒合理的한 세계”에서 시작되고 있으므로 “없지만 있다고 간주하고…”라는 理神論的 中庸의 태도도 취할 수 없는 것은 조금이라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그가 주장하는 L'absurde 사상의 논리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무신론자들의 영웅이라 할 Meursault의 순수성만으로 신만이 가질 수 있는 至高至純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理想에 불과하여 “진 인간의 순수화”란 도저히 현실화 될 수 없는 이 세계에 대해 懷疑를 나타내게 된다.

5. 人間 純粹性の 失敗

그러나 Meursault에 의한 인간 本然의 자세를 요구하는 순수성의 추구는 인간사회의 과거와 미래는 물론이고 현재에서도 영원한 과제로 남아있는 문제이므로 종교나 철학, 문학과 예술의 측면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절대적인 과제에 속하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Camus는 마지막으로 Meursault의 재판과정을 통해서도 “추구의 영속성”을 주장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음 예문

“Le jour de mon arrestation, on m'a d'abord enfermé dans une chambre où il y avait plusieurs détenus, la plupart des Arabes. Ils ont ri en me voyant. Puis ils m'ont demandé ce que j'avais fait. j'ai dit que j'avais tué un Arabe et ils sont restés silencieux. Mais un moment après, le soir est tombé. Ils m'ont expliqué comment il fallait arranger la natte où je devais coucher.”(p.114)

에서 보면 Meursault가 처음으로 감방에 들어가서도 대부분이 아랍인들인 수감자들의 죄

목을 묻는 질문에 “J’avais tué un Arabe.” 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점에서는 순수성 보다 차라리 일종의 영웅적인 기개도 엿보일 정도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던 아랍인들이 침구 펴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대목에서는 “순수성”이 인종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독자들의 Sympathie를 얻어내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또한

“Mais justement l’effort que j’ai du faire aidait à les passer. Par exemple, j’étais tourmenté par le désir d’une femme. C’était naturel, j’étais jeune. Je ne pensais jamais à Marie particulièrement. Mais je pensais tellement à une femme aux femmes, à toutes celles que j’avais connues, à toutes les circonstances où je les avais aimées, que ma cellule s’emplissait de tous les visages et se peuplait de mes désirs. Dans un sens, cela me déséquilibrait. Mais dans un’autre, cela tuait le temps.”(p. 120~121)

에서도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 처한 한 젊은이가 여인을 탐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Sympathie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수긍할 평범한 상식이기 때문인지도 모르나 자기를 혐오하고 있는 Marie를 다른 여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사고방식에는 다소간 Antipathie는 사라지고 다시 “순수성”에 Sympathie를 가지도록 한 작가의 계획된 의도는 “Cela tuait le temps.”이란 짙막한 표현이 Imparfait로 묘사되어 “습관”의 image를 줌으로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재판관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의 순수성은 Meursault 자신만의 관념적인 순수성으로 볼 수 있으나,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는 순수성에 동조하는 善과 순수성을 말살하려는 惡을 대립시켜 순수성 강조에 상승효과를 노리고 있다. 즉, Meursault에게

“전략... D’ailleurs, avait-il ajouté, la cour sera pressée parce que votre affaire n’est pas la plus importante de la session.”(p. 127)

이라고 안심시키는 담당 변호사와 죄수에게는 엄연히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는 담배를 권하는 호송간수와

“Je sais bien que J’ai eu tort. Mais je n’ai pas osé refuser la cigarette que Monsieur m’a offerte.” En dernier lieu, on m’a demandé si je n’avais rien à ajouter. “Rien, ai-je répondu, seulement que le témoin à raison. Il est vrai que je lui ai offert une cigarette” le concierge m’a regardé alors avec un peu d’étonnement et une sorte de gratitude. Il a hésité, puis il a dit que c’était lui qui m’avait offert le café au lait. (p. 139)

에서처럼 양로원 영안실에서 밤샘하던 날 별 의식없이 Meursault 에게서 담배를 얻어 피운 사실이 법정에서 제기되자, 겁에 질려 발뺌하다가 Meursault 의 솔직하고도 대담한 진술에 감동되어 담배와 함께 법정에서 문제가 된 le café au lait 는 자기가 드렸다고 고백하는 양로원 수위라든가,

“ Céleste s'est alors retourné vers moi. Il m'a semblé que ses yeux brillaient et que ses lèvres tremblaient. Il avait l'air de me demander ce qu'il pouvait encore faire. Moi, je n'ai rien dit, je n'ai fait aucun geste, mais c'est la première fois de ma vie que j'ai eu envie d'embrasser un homme.” (p.142~143)

에서 순수성의 영웅 Meursault 가 난생 처음으로 껴안아 주고 싶은 남자로 묘사된 식당주인 Céleste 나, Masson, Salamano 영감과 비록 Meursault 를 죄의 구렁텅이 속에 몰아넣은 장본인이기는 해도 Meursault 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Raymond 등은 미약하나마 순수성에 동조하는 일단의 “群”으로 등장하는 것은 “인간 순수성”의 추구가 “永續性”에서 “無限界性”으로 다시 “무한한 可能性”을 보여 주려는 작가의 의도로도 해석된다.

그들의 유리한 증언이 단순히 친지이기 때문이란 “人之常情”을 벗어났다는 것은 양로원 원장의 要式的인 증언과 양로원에서 Meursault 어머니를 마음의 연인으로 생각했던 Thomas Perez 영감의 감상에 젖은 증언과는 달리 따뜻한 人間愛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명백해진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노력도 Camus 자신의 l'absurde 사상에서 몰합리로 규정된 이 세계, 즉 기성사회의 관습과 규범을 고수함으로써 “인간 순수성”이란 “善”의 입장에서 볼 때 “惡”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검사”의 집요한 論告

“Oui, MM. les jurés apprécieront. Et ils concluront qu'un étranger pouvait proposer du café, mais qu'un fils devait le refuser devant le corps de celle qui lui avait donné le jour.” (p. 140)

이나, 증언대에 오른 Marie 에게 방청객들 앞에서까지 Meursault 와 관계를 가졌던 날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는

“Messieurs les jurés, le lendemain de la mort de sa mère, cet homme prenait des bains, commençait une liaison irrégulière, et allait rire devant un film comique. Je n'ai rien de plus à vous dire.” (p.144~145)

로나, 배심원들에게

“Le même homme qui au lendemain de la mort de sa mère se livrait à la débauche la plus honteuse à tué pour des raisons futiles et pour liquider une affaire de moeurs inqualifiable.” (p. 147)

로 法에 앞서서 人倫으로 피고인 Meursault 를 힐난하고는 끝내

“Je vous demande la tête de cet homme et c'est le coeur léger que je vous la demandé. Car s'il m'est arrivé au cours de ma déjà longue carrière de réclamer des peines capitales, Jamais autant qu'aujourd'hui, je n'ai senti ce pénible devoir compensé, balancé, éclairé par la conscience d'un commandement impérieux et sacré et par l'horreur que je ressens devant un visage d'homme où je ne lis rien que de monstrueux.” (p. 157)

라고 Meursault 의 사형을 요구한다.

“神”에 의해 “合理”로 규정된 이 기성사회의 기존 질서와 윤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살인이라는 “法”적인 문제보다도 “人間性”이 더욱 부각되어 변호사가 “도대체 어머니의 장례가 기소 이유입니까? 아니면 살인이 기소 이유입니까?”라고 반문할 만큼 검사의 논고가 “人倫”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의도가 “인간 순수성”을 逆說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이 노출되고 있다. 만약 “法”으로만 논고해 나간다면, “法”이란 인간이 만든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至高至純한 “神”에 대항하는 “인간 순수성의 代行”을 논리의 핵심으로 내세운 Camus의 이론이 성립되지 않을 뿐더러, 순수성의 실패를 “사형”으로 결론짓기도 힘들게 된다. 왜냐하면 단순 살인만으로 한 인간을 단두대로 보낸다는 것은 아무래도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사회의 질서와 관례는 사실상 “神”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神”을 빙자한 인간에 의한 약속으로 인간 자신이 자체를 속박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즉, 모든 인간이 순수하다면,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속박할 어떠한 규약도 필요 없기 마련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순수성의 영웅인 Meursault 는 자신의 행동, 즉 살인이라는 결과를

“J'ai dit rapidement, en mêlant un peu les mots et en me rendant compte de mon ridicule, que c'était à cause du soleil.” (p. 158)

로 태양 때문에 ...라고 결론지어 버린다.

방청객들을 웃도록 만든 이 어처구니 없는 살인의 이유는 순수성 추구란 관점에서 볼 때

에 그 나름대로 이유가 될 수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현실화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인간의 이상이지만, 主唱者인 Camus의 입장에서 쉬이 좌절하거나, 하나의 통속적 경향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문학에서 태양의 상징적 의미는 신화에서와 마찬가지로 神性的 發現 즉 하나님의 아들같이 신격화되어 있으므로, “태양때문에...” 살인을 한 사나이 Meursault의 이름이 Meur(죽음)+soleil(태양)에서 철자의音を 합성하여 작명된 것으로 인정되는 근본적인 작가의 의도는 “神”에게 철저히 “반항”하는 Camus 자신의 l'absurde 사상에 의한 “반항하는 태도”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재판과정을 통하여 Meursault가 후회한다는 대목은 한 구절도 없기 마련인데, 검사의 다음 논고

“A-t-il seulement exprimé des regrets? Jamais, messieurs. Pas une seule fois au cours de l'instruction cet homme n'a paru ému de son abominable forfait.”
(p. 154)

에서 보다시피 기존 사회질서의 상징인 동시에 인간 순수성의 입장으로 볼 때에 “惡”으로 규정되는 검사의 분노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여튼, 결국 Meursault는 France 국민의 이름으로 공개 처형이란 극형을 언도받게 되는데, 이는 “現實”에 대한 “非現實”의 패배인 동시에 “관념적인 惡”에 대한 “善”의 패배이며, 또한 “至高至純”한 神性を 代行하려는 “人間 純粹性”의 추구가 좌절되는 것이기도 하다.

5. 結論：眞正한 喜悅

인간에게 극한 상황이란 바로 죽음을 의미하며, 이 죽음만큼 인간을 불안과 공포, 좌절과 회의 속에 몰아넣는 “必然性”도 없기 때문에 온갖 종교가 모두 이 공포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 나름대로 갖가지 교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있는 한 종교도 있다는 조건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립되고 있다.

Camus의 l'absurde 사상에서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종교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이 인간의 숙명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라는 方法論的 懷疑에서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단정짓고, “그러면 죽어버려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l'absurde 사상이 시작된다.

그러나 Camus는 Pessimisme적 경향에 의해 살아갈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단정지

어버린 “人間에게 沒合理”한 이 세계를 인식하고, 그럴수록 더욱 그 몰합리를 직시하며, 장래에 어떻게 되리라는 막연한 기대는 아예 떨쳐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의 사상의 골자인데, 여기서 인간에게 몰합리한 세계는 “矛盾”으로, 그 모순을 직시하는 태도를 “反抗”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태도를 “熱情”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설 *L'Étranger*는 Meursault가 이 세상의 虛妄함과 모순을 인식하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 사형 선고라는 극적인 동기로 인해 이제껏 무관심과 무의식 속에 평범한 일상생활을 해오던 Meursault가 이 세상의 모순을 인식하고 인간에게 몰합리한 세상이란 것을 인식하게 됨으로서 소위 *l'absurde* 사상에 의한 不條理 인간이 되어 죽음에 대한 태도를

“Je prenais toujours la plus mauvaise supposition : mon pourvoi était rejeté.
“Eh bien, je mourrai donc.” Plus tôt que d'autres, c'était évident. Mais tout le monde sait que la vie ne vaut pas la peine d'être vécue. Dans le fond, je n'ignais pas que mourir à trente ans où a soixante-dix ans importe peu puisque, …중략… Du moment qu'on meurt, comment et quand, cela n'importe pas, c'était évident. …중략… donc, je devais accepter le rejet de mon pourvoi.” (p. 173 ~ 174)

와 같이 超然한 면모를 보임에 따라 마치 得道한 종교인이나, 世俗을 超脫한 道人的 품모도 느끼게 한다.

“살만한 가치가 없는 이 세상의 虛妄함”을 진실로 깨닫고 나면, 죽음을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게 되고, “喜悅”로서 맞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소설의 마지막에서

“Je m'ouvrais pour la première fois à la tendre indifférence du monde. De l'éprouver si pareil a moi, si fraternel enfin, j'ai senti que j'avais été heureux et que je l'étais encore. Pour que tout soit consommé, pour que je me sente moins seul, il me restait à souhaiter qu'il y ait beaucoup de spectateurs le jour de mon exécution et qu'ils m'accueillent avec des cris de haine.” (p. 186)

로 끝맺음하고 있는데, “神”에 의한 영혼의 구원을 강력히 거부한 Meursault가 인간 자신에 의한 관념상의 의지라도 얼마든지 죽음이란 인간의 숙명에 대한 공포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實存”하는 인간, Camus가 창조한 “不

條理人間”만이 認知할 수 있는 행복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인간 순수성”의 추구는 Meursault의 죽음으로 인하여 현실화 될 수 없는 理想에 불과하다는 점을 작가 자신도 인정하는 셈이지만, 그래도 그러한 理想 자체까지도 포기할 수 없고 또한 해서도 안될 것임은 實存하려는 인간에게는 영원한 課題가 될 것이므로 Meursault는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에도 결코 굽히지 않는 毅然한 자세를 순수성을 말살하려는 “증오의 완성”으로 표현된 “이 세계의 虛妄” 앞에서 보여 주어야만 되는 것이다.

BIBLIOGRAPHIE

1. L'Étranger: Folio, 1978, Albert Camus.
2. L'Étranger: Hachette, 1973, Bernard Pingaud.
3. Camus le juste: Les éditions du cerf, 1962, Georges Hourdin.
4. Dictionnaire des Symboles: Seghers, 1973, Jean Chevalier.
5. Camus: Gallimard, 1976, Jean-Claude Brisville.
6. Camus: Editions Universitaires, 1963, Robert Luppé.
7. Camus par lui-même: Editions du Seuil, 1970, Morvan Lebesque.
8. Malraux, Camus, Sartre, Bernanos: Editions du Seuil, 1953, Emmanuel Mounier.

